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은 여러 사상가의 가상 대화 장면이다. 갑~병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 악덕과 무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을 - 인간은 신의 모사이므로 자유 의지가 없다.
- ③ 병 - 인간은 변증법적 발전을 거듭하는 정신적 존재이다.
- ④ 갑, 을 -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다.
- ⑤ 을, 병 - 사유 재산이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의 원인이다.

2. 갑, 을 사상가의 윤리적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사람은 태어나면서 욕구를 가지는데, 욕구 충족은 한계가 없어서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 혼란해진다. 선왕은 이 혼란을 싫어해서, 예의를 정하여 사람의 욕구를 충족해 주었고 사람이 구하는 것을 나누어 주었다.  
 을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불의(不義)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전쟁 상태가 되면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不正義) 같은 개념이 설 자리는 없다. 이 상태에서는 소유권과 지배권도 없으며, 내 것과 네 것도 없다.

- ① 갑은 도덕을 수단으로, 을은 목적으로 보았다.
- ② 갑은 인간이 평등하다고, 을은 평등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③ 갑은 인간의 본성이 악(惡)하다고, 을은 선(善)하다고 보았다.
- ④ 갑, 을은 계약에 의해 법(法)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 ⑤ 갑, 을은 지(知)적 능력을 도덕생활의 원천으로 보았다.

3. 고대 서양의 (가), (나) 사상에서 주장하는 윤리적 삶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엇인가 너에게 올 때, 손을 뻗어 적절한 몫을 취하라. 그것이 지나가는가? 붙들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향해서 너의 욕구를 드러내지 말고 너의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나) 아름다운 남녀와의 즐거움이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욕구의 충족과 회피 근거를 파악하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준다.

- ① (가)는 감정을 선악 판단의 척도로 간주하였다.
- ② (가)는 쾌락을 얻기 위해 이성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③ (나)는 윤리의 핵심 가치를 절제로 보았다.
- ④ (나)는 공익의 적극적인 실현을 주장하였다.
- ⑤ (가), (나)는 평정심을 얻기 위해 허황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4. 다음 사상가의 도덕 원리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성과 재기(才氣) 등 정신의 재능, 용기와 과단성 등 기질상의 성질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좋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소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단적으로 악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 ① 정념을 극복한 의지가 진정한 선의지이다.
- ② 선에 대한 동경과 행복 추구의 욕망은 동일하다.
- ③ 자율이란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 ④ 타율적으로 행한 선행은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
- ⑤ 동정심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의 원리가 될 수 없다.

5. 갑~병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로우심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을 : 모든 이로우심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서로 이롭게 하는 것에서 생긴다.  
 병 : 군주는 피로 마음을 묶거나 사심(私心)으로 자신을 얽매지 않는다. 군주는 법에 의거하여 시비(是非)를 엄격히 가려서 상과 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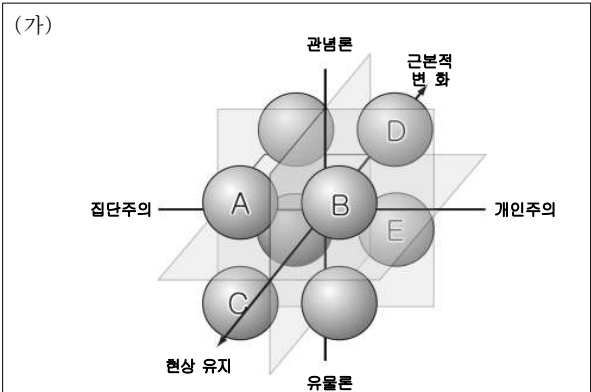
- ① 갑은 명분과 실리를 하나로 보았다.
- ② 을은 갑이 예절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다고 비판하였다.
- ③ 을은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가 정명(正名)이라고 주장하였다.
- ④ 병은 군주가 직접 통치하지 말고 신하가 일을 하도록 드러내지 않게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갑은 이름에 맞는 행동을 강조한 반면, 병은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을 강조하였다.

6. 밑줄 친 ㉠, ㉡을 주장하는 윤리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국가는 모두에게 도덕이나 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고, 동시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자유도 부여했다. 그러므로 이 국가에 머물기로 하였다면 국가의 도덕이나 제도 준수에 동의한 것이다. 이 동의에 의해 도덕적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도덕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무이므로 준수되어야 한다.
- 국가는 도덕과 관습이 명령한 대로 시민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했고 양육했으며 교육시켰고, 좋은 재화를 공급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도덕은 시민의 삶에 이익과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준수되어야 한다.

- ① ㉠ - 행위의 결과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 -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보편적, 객관적인 목적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③ ㉡ - 무조건적 명령인 도덕 법칙의 실천을 중시한다.
- ④ ㉡ - 시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도덕규범이 있다고 본다.
- ⑤ ㉠, ㉡ - 도덕규범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7. 사회사상의 성격을 유형에 따라 (가)와 같이 도식화할 때, (나)에서 설명하는 사회사상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 프랑스 혁명 당시 이 사상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미래의 일을 처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으므로, 현재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관습과 전통이 선조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므로, 이것을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8~9] 갑과 을은 조선 시대의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면, 정(情)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즉 사단(四端)은 본연지성의 소산으로, 칠정(七情)은 기질지성의 소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을 : 사단과 칠정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을 겸(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칠정을 겸한 것이 아니라, 칠정이 사단을 겸한 것이다.

8. 을의 주장에 대한 갑의 비판을 추론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다.
- ② 사단은 이, 칠정은 기에서 발한 것이다.
- ③ 사단은 선한 감정, 칠정은 악한 감정이다.
- ④ 사단과 칠정은 같은 정(情)이므로 출발점이 같다.
- ⑤ 마음의 작용에서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9. 밑줄 친 '인심', '도심'에 대한 갑과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사람은 누구나 형기(形氣)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심(人心)이 있고, 누구나 성명(性命)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심(道心)이 있다. 그럼에도 인심과 도심이 다른 것은, 그것이 형기의 사사로움 [形氣之私]에서 나오기도 하고, 성명의 바름 [性命之正]에 근원하기도 하여 각기 지각(知覺)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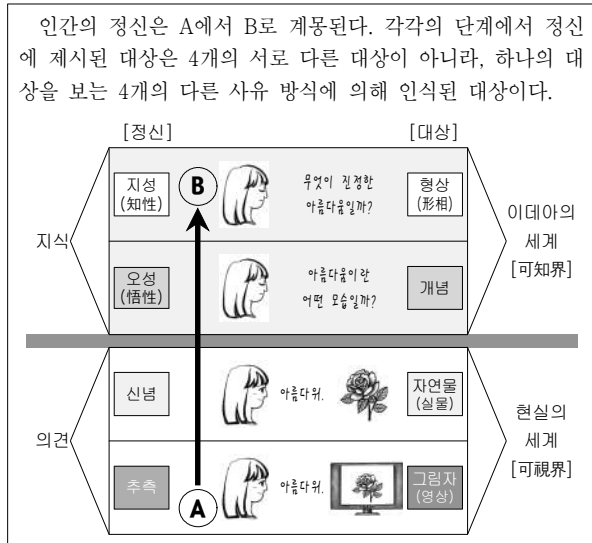
- ① 갑 - 도심에는 천리(天理), 인욕(人慾)이 함께 있다.
- ② 갑 - 경(敬)을 통하여 인심을 도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 ③ 을 - 도심은 천리, 인심은 인욕이다.
- ④ 을 - 마음이 도심으로 출발하더라도 욕구에 사로잡히면 인심으로 바뀔 수 있다.
- ⑤ 갑, 을 - 도심과 인심의 선한 부분이 사단(四端)이다.

10. 다음은 여러 사상가가 주장한 이상 사회이다. 갑~정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 세 계급이 자신의 덕을 실천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사회
- 을 :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정치적 조직이나 권력기관의 강제수단이 철폐된 사회
- 병 : 성인 남녀 모두 6시간 일하고 8시간 잠 자며, 필요에 따라 식료품을 분배하는 사회
- 정 :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기고,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노인, 과부, 고아 등이 고생 없이 사는 사회

- ① 갑은 지혜로운 군주를 이상적인 통치자로 보았다.
- ② 병은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를 주장하였다.
- ③ 정은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중시하였다.
- ④ 갑, 병은 사회 구성원이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⑤ 을, 정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였다.

11.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B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 ② B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용을 취하지 못하면 악덕에 빠진다.
- ③ B에 도달하여 참된 지식을 획득하게 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 ④ B에 도달하려면 도덕 행위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 ⑤ B에서 획득되는 사물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사물 안에 존재한다.

12. (가), (나)의 원리를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특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사회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행위를 시장을 통해 상호 조정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동은 시장이라는 상호 조정 매커니즘에 의해 조절된다.  
 (나) 사회 정의가 있어야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적절한 수준에서 자유가 제한되고 정의가 구현되어야 인간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 ① (가) -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
- ② (가) -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한 재화 배분
- ③ (나) - 소극적 자유에 기초한 평등의 확장
- ④ (나) - 세금 감면, 정부 기구 축소, 공기업 민영화
- ⑤ (가), (나) - 시장의 자율적 조절 능력 증진

13. 다음 두 사상가의 주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마음[心]이 곧 이치[理]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마음 밖의 일이 있으며,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  
 을 : 내가 더욱 자주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항상 새롭고 높아지는 감탄과 존경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하늘의 빛나는 별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① 인간의 도덕성은 감정과 욕구에서 비롯된다.
- ② 도덕 법칙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③ 윤리적 행위의 판단 기준은 선형적으로 주어진다.
- ④ 사물의 이치에 근거하여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한다.
- ⑤ 행위의 도덕성은 주관적 의지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14. 그림에서 제자가 깨우친 수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전을 공부하여 도를 깨닫는다.
- ② 지식을 축적하면서 점차 깨달음에 도달한다.
- ③ 해탈을 위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욕망을 버린다.
- ④ 견성(見性)을 통해 청정한 본성을 직관(直觀)한다.
- ⑤ 계율(戒律)을 엄격하게 지켜 돈오(頓悟)에 이른다.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견해로 옳은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본성에는 연민(憐憫)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에게 별 이익이 없어도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 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은 이성적 판단이다.
- ② 동기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이다.
- ③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
- ④ 옳음의 기준은 개인적인 시인과 비난의 감정이다.
- ⑤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쾌락을 함께 느낄 수 있다.

16. 다음 사상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은 실제 행위를 매개로 창조된다.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지식이 진리이다.
- 대상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하려면 그 대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떤 감동을 주는지, 어떤 반작용을 발생시키는지 알면 된다.

—<보 기>—

ㄱ. 이성은 현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이다.  
 ㄴ. 개인의 삶은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ㄷ. 성과나 결과가 성장과 개선의 과정보다 더 가치 있다.  
 ㄹ. 선하게 살다가도 타락하기 시작하면 악인이고, 악하게 살다가도 선하기 시작하면 선한 사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7. 다음 사상의 사회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에 대한 간섭의 직접적인 효과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나, 간접적인 효과는 대부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의 부정적인 결과는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자유와 간섭 사이의 선택이 그때 그때의 편의에 맡겨진다면 간섭이 증가하여 자유는 점차 파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밀(J. S. Mill)

- ① 집단주의를 기초로 한 시민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② 자유를 규제하여 계층 간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③ 생산 수단을 공유하여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사유재산 보호와 계약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였다.

18. 다음 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동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야구공은 큰 공인가 작은 공인가? 탁구공에 비하면 크지만, 농구공에 비하면 작다. 강은 소리를 내어 흐르는 개울보다 크지만, 소리 없이 흐르는 바다보다는 작다. 개울만 보던 사람에게 강이 커 보이지만, 바닷가에 살던 사람에게는 작아 보일 것이다. 의상 대사는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했고, 한 시인은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고 노래했다.

- ① 지식은 객관적이며 명확한 것이다.  
 ② 오감(五感)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다.  
 ③ 만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일체의 분별 의식을 없애야 한다.  
 ⑤ 개개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만물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19. 다음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삶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이 최고선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능을 밝힘으로써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피리 부는 사람의 선은 피리를 잘 부는 것이듯, 인간 자체에도 고유한 기능이 있다면 바로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선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적 활동에 있는 만큼 훌륭한 인간, 즉 행복한 인간은 이성을 잘 활용하여 바람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보 기>—

ㄱ. 좋은 행동이 몸에 배도록 습관화하는 것  
 ㄴ. 도덕 생활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것  
 ㄷ. 정념에 기초한 감정을 바탕으로 생활하는 것  
 ㄹ. 잠재적 가능성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사는 것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 그림은 도(道)에 관한 중국 고대 사상가의 견해이다. 갑~정이 주장한 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인위에 따르지 않는 자연의 순리로 보았다.  
 ② 을은 인도(人道)가 천도(天道)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다.  
 ③ 병은 인간 세상과 무관한 우주의 진리로 보았다.  
 ④ 갑, 병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법칙으로 보았다.  
 ⑤ 을, 정은 감각이나 인식을 초월한 형이상(形而上)의 것으로 보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